

① 해외펀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①역내펀드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수입된 ^②역외펀드가 있습니다.

① 역내펀드(On-Shore Fund)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용되는 펀드로서,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로 ~~*~~국내에 설립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국내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는 원화로 이루어지며, 해외투자펀드라고 합니다. 국내 수익증권과 구조 및 투자방식이 동일하며 투자대상만 해외에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적립식 투자의 경우 세금우대 지정이 가능하고 펀드 자체적으로 환헷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환헷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헷지 여부에 따라 역외펀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②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현지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용되고 국내에 판매되는 펀드로서, ~~*~~해외투자 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를 국내에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펀드 내 환헷지가 불가능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환헷지 여부를 결정하고, 헷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역내펀드와 다른점입니다.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환헷지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는 펀드이죠.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해외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역외펀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해외에 공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 세금, 배송문제 등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 처럼 해외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을 투자하는 펀드 역시도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 보다 외국 현지에서 운용을 하게 될 경우 세금문제나 기타 매매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 해외에 지사를 두고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②역외펀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